

영천에 '노동선방' 연다

종명-범진스님 땅 2천여평 마련 "황무지 개간하며 백장청규 실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따르는 노동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두 스님이 오는 3월 말 경상북도 영천시 임곡면에 노동선방을 연다.

일하는 스님들의 공동체 '일과 깨달음 도량'의 종명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과 범진스님(일본 대정대 석사)이 바로 그들이다.

"무조건 좌선만을 고집하고,

고 토론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황무지가 된 땅은 곧 개간할 계획이다.

스님은 올 첫 농사로 콩을 심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콩의 80%는 유전자 조작 수입품입니다. 단순한 먹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입 콩을 대신해 경북대에서 제공받은 조선훈 씨앗을 심어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생각입니다."

스님은 수확한 콩으로 황토 노동선방에서 전품 무공해 매주도 만들어 불교귀농학교의 도농공동체를 통해 판매도 할 생각이며, 도라지와 더덕도 재배할 계획이

다. 또 사찰과 불교학생회 등의 교류를 통해 생태농장을 유지하고, 도심포교 때문에 관심밖으로 밀려난 농촌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선방 운영은 문명의 전환점에서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새로운 불교문화운동으로 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중요한 중생교화사업의 하나라고 믿는다"는 스님은 "올해는 두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땅으로 만나며 깨달음을 향한 또다른 시도를 전개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새 신자 전법회는 최소 3개월동안 초심불자들을 온전한 신도이자 불자로 키워내는 일을 맡는다.

"내가 접수한 새 신자 내가 책임진다" 봉은사 '초심자 전법회' 창립

"내가 접수한 새 신자는 내가 책임진다."

2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창립된 '봉은사 새 신자 전법회'(회장 고삼우행) 회원들의 다짐이다.

처음 봉은사를 찾은 이들이 온전한 불자이자 담당하는 봉은사 신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새 신자 전법회가 하는 일이다.

주지 원혜스님은 "1년에 1천5백여명의 새 신자가 봉은사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동안 새 신자를 위한 전법활동은 포교실에서 상담원이 축원카드를 작성하고,

뉴스 & 뉴스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진 교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스님)은 10일 총무원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사회복지부장 성조스님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 7명의 이사진을 전면 교체했다. 또 지하스님을 감사에 유임시키고 호법부장 종고스님을 새 감사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 10억1천6백89만원의 예산으로 산하시설 보조금(3억6천4백여만원), 불우이웃 결연사업(9억1천4백여만원), 교육문화사업(8천만원), 직영시설보조금(8천만원), 시설수탁운영·지원사업(5천2백만원), 정보자료실운영(5천1백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3천4백만원), 출판홍보사업(1천9백만원), 조사연구사업(1천6백만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중심회 27일 운영위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공동회장직무대행)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은 10일 실무협의의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준비실무단(단장 조종래 총무국장)을 구성했다. 정성운 기자

중정협, 경제회복 기원법회

대한불교중정협의회(회장 대산·삼론종 종정)는 12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국가경제회복 및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산 삼론종 종정, 영명 법상종 종정을 비롯한 각 중단 중정종사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백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도필선 기자

불방 정상화 반대위 해체

97년 4월 불교방송 공공형량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결성됐던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승)가 9일 해체됐다. 이번 조치는 검찰 수사의 공식적인 종료와 고소·고발된 조해영(前 불교방송사장), 송병국(前 불교방송 상무), 김동신(前 불교방송 총무국장)씨 등 4명이 2일 서울지법검정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주일 기자

故 강덕경할머니 지문업서

나눔의집(원장 혜진)은 故 강덕경 할머니의 지문 초상작품을 인쇄한 업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 업서를 가진 사람은 한 업서에 가정, 직장, 단체 등으로부터 10~15명의 지문서명을 받아 나눔의집으로 반송하면 된다. 반송된 10만장의 업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배상과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군 위안부 관련 재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된다. (0347)768-0064 김재경 기자

6월 법사대회 열기로

법사연합회 올 사업계획 9일 발표

한국불교법사연합회(공동회장 직권진권 한성진)는 9일 서울 안국동 동산교육회관에서 신년하례 및 업무보고회를 갖고 오는 6월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법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21세기 불교중흥과 법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법사대회는 재가법사 3백여명과 신도 1만여명이 참석, 법사품수식과 보살계 수계식으로 진행할 예정이

나진·선봉어린이 90% 건강회복

JTS등 구호효과

북한 나진·선봉지구 어린이중 9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종교사 회단체와 결연을 맺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기구인 정토회 산하 한국JTS(이사장 법륜)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나진·선봉지구 1만6천여명 유원생 1만1천여명중 1만여명이 영양실조 치료를 받아 체중이 15% 이상 증가했다.

한국JTS는 지금까지 2억6천여 만원의 설탕과 분유, 쌀, 옥수수 등을 지원했으며, 매일 설탕 10다 분유 5t 등의 구호품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범종교 남북교류협 공동대표모임 정례화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표회의를 갖고 이재정신부(성공회대 총장)를 공동대표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복지부) 지성스님(대교종 총무부장) 회장 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불교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불교계 운영 위원으로는 자월스님 하림스님 지현정사 정영근 유지원 정안숙 씨가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동대표 모임을 정례화하고 종교인 방북 결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종교계 남북교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정기포럼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불교개혁 설문조사

한국불교개혁위원회(회장 신평식·방송진흥원 관리처장)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98년도 결산 총1천74만원을 승인하고 99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회장단을 비롯 상임지도위원 감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간담회 △창립1주년 기념법회 △불교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참선 수련회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위원장 기자
(ryyui@buddhopia.com)

선방수좌 40명 해제보시금

디지털대장경 후원금 쾌척

7일 인천 용화선원에서 봉행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주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의 후원법회'에서 안거 중이던 선승 40여명이 '해제보시금' 1천여만원을 보시했다(사진).

'해제보시금'은 안거를 마친 선승들이 3~4개월의 만행중에 사용하는 여러 수행에만 전념하는 선승들의 유일한 정재다. 수좌들의 후원금은 해제일인 3월 2일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전달된다.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은 "소금에 담구고 옷칠을 한 대장경 경판은 해인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산일 뿐"이라며 "디지털 대장경을 해인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고려대장경을 볼 수 있는 21세기 대장경인 만큼 가치있는 보시"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불교TV 살리기' 후원회 결성

불교TV(사장 신혜스님)는 11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불교TV 살리기'를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영숙이사(방송인)가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주주총회를 3월 17일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

선방수좌 40명 해제보시금

디지털대장경 후원금 쾌척

7일 인천 용화선원에서 봉행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주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의 후원법회'에서 안거 중이던 선승 40여명이 '해제보시금' 1천여만원을 보시했다(사진).

'해제보시금'은 안거를 마친 선승들이 3~4개월의 만행중에 사용하는 여러 수행에만 전념하는 선승들의 유일한 정재다. 수좌들의 후원금은 해제일인 3월 2일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전달된다.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은 "소금에 담구고 옷칠을 한 대장경 경판은 해인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산일 뿐"이라며 "디지털 대장경을 해인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고려대장경을 볼 수 있는 21세기 대장경인 만큼 가치있는 보시"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국립공원 경찰 3배로 늘린다

사찰방화·불법야영·무허가건축 등 단속강화

국립공원내 불법 야영과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단속하는 공인경찰(파크 레인지)이 3배로 늘어난다. 이데라라 정통 사찰에 대한 방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인경찰을 현재 1백17명에서 3백41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최근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별로 경찰 지방경찰청에 공인경찰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추가 지명을 신청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원의 신청대로 경찰이 사법경찰관리를 모두 추가 지명할 경우 20개 국립공원별 평균 공인경찰 수는 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공인경찰은 공원내 토지형질변경 등 무허가 건축행위와 무단 출입, 불법 야영, 쓰레기 불법투기, 밀렵과 식물 무단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인

국립공원 경찰 3배로 늘린다

사찰방화·불법야영·무허가건축 등 단속강화

국립공원내 불법 야영과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단속하는 공인경찰(파크 레인지)이 3배로 늘어난다. 이데라라 정통 사찰에 대한 방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인경찰을 현재 1백17명에서 3백41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최근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별로 경찰 지방경찰청에 공인경찰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추가 지명을 신청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원의 신청대로 경찰이 사법경찰관리를 모두 추가 지명할 경우 20개 국립공원별 평균 공인경찰 수는 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공인경찰은 공원내 토지형질변경 등 무허가 건축행위와 무단 출입, 불법 야영, 쓰레기 불법투기, 밀렵과 식물 무단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인

탈종공고

한국불교법화종 귀하

사찰명	주지
안국사	노청공
청룡사	박표화
삼보암	정명자
약수암	차화심
죽림정사	오정관
관음사	이도용
수덕정사	옥도현
삼향사	손백산
달마정사	김도우
보타원	추석정
반야원	구경심
용구사	김난순
성불암	권혜봉
수덕암	최혜
보현암	박노성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 사상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①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 내용: 선(禪) 초심자의 실상실수(室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배, 삼귀의, 오계 수계 등 불야예법.
- ◆ 장소: 성북동 길상사 법전 ◆ 인원: 선착순 50명
- ◆ 대상: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2만원

차수	기간	대상	회비
제4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3월 6일(토)~ 7일(일)	일반인,경상사거사협회	2만원
제6차	3월13일(토)~14일(일)	일반인,경상사거사협회	2만원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 (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익월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 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봉사자 동참: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지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동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시무실 보조, 뒷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하...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가 얼마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불균형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대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치면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향비와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괴담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민선)

매당되는 증상(0)하십니까.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가 아픈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나 신경쇠약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통이 자주 온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맛깔이 없고 딱딱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밥맛이 떨어지거나 트고 굶는 날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눈이 침침하다
18. 평소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